

# 權力과 民間의 二重變奏曲

- 莫言의 《檀香刑》을 중심으로 -

鄭智仁\*

---

◁ 목 차 ▷

---

- I. 들어가는 말
  - II. '刑罰劇': 권력의 獨奏
  - III. '地方劇' '猫唱': 민간의 合奏
  - IV. '檀香刑劇': 권력과 민간의 二重變奏
  - V. 나오는 말
- 

## I. 들어가는 말

莫言이 2001년 《檀香刑》을 출간하면서 후기에서 「이 책은 아마도 시대에 맞지 않는 책일 것이다. 《檀香刑》은 나의 창작 과정에서 의식적인 후퇴이다.」<sup>1)</sup>라고 했듯이 《檀香刑》은 당시 서구문학의 영향이 지대한 상황에서도 민간의 說唱, 회곡화된 서사수법, 대량의 운문사용 등 전통을 많이 채용한 소설이다. 《檀香刑》은 서로 다른 두 공간의 문화적 분위기, 즉 정치적 공간인 北京의 어두운 형벌문화와 작가의 고향인 山東 高密縣의 신비로운 지방문화를 민간의 說唱과 회곡화된 서사수법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어 마치 무대에 올려진 두 회곡 공연을 보는 듯하다.

특히 그 공연 속에서 서로 다른 음색으로 연주된 듯한 '소리'는 소설 곳곳에 울려 퍼지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莫言은 《檀香刑》에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소리'이고 이 소설을 구상하고 창작한 원인도 '소리'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가 창작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늘 그의 의식세계를 붙잡고 있던 소리는 고향의 기차소리와 지방극 猫唱(고양이 노래) 소리로 《檀香刑》은 처음에는 기차와 철

---

\*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1) 莫言 〈檀香刑後記〉; 莫言 《檀香刑》(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80쪽.

로에 얽힌 신기한 전설을 토대로 쓰여 졌다. 하지만 莫言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쓰기 시작했고 결국 기차 소리를 미약하게 하고 신비한 색채를 지니고 있는 猫唱의 소리를 돌출시키니 작품의 풍부성은 미약해졌지만 민간의 숨결과 비교적 순수한 중국 풍격이 드러났다.<sup>2)</sup>

이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들리는 또 하나의 소리는 형벌을 주제로 연출된 ‘刑罰劇’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이다. 여러 소설 인물들이 형장에서 잔인하게 처형되는 장면은 통치 권력의 힘을 과시하고, 사악한 감상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곡으로 연출되고 그 희곡 장면마다 새어 나오는 죄인의 고통스런 신음소리와 망나니가 만들어내는 섬뜩한 곡조는 막강한 권력의 힘을 반증하는 소리가 되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 낙후되고 외진 지역의 지방극 猫唱(고양이 노래)의 소리와 권력의 중심 공간에서 연출된 ‘刑罰劇’에서의 섬뜩한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소설은 광장에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소리 높여 노래하면 그 주위를 둘러싼 청중이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희곡 공연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이 소설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음색의 소리를 듣고, 서로 다른 주제로 연출되는 연기를 보는 희곡 무대로 이끄는 매력이 있다.

그렇다면 소설 속의 ‘刑罰劇’과 ‘地方劇’이라는 이중적 장치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刑罰劇’과 ‘地方劇’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들은 소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소설속의 의미를 확충하는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고밀현의 신비한 민간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작가의 상상력과 함께 소설 속에 어떻게 용해되어 풍부하고 다채로운 소설세계로 탄생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II. ‘刑罰劇’ : 권력의 獨奏

《檀香刑》은 清末의 維新變法, 義和團 사건, 八國 연합군의 진입 등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北京이라는 권력의 무대에서 벌어지는 몇 차례 잔인한 형벌 장면을 묘사하여 淸 왕조의 부패와 만행을 폭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탁한

2) 莫言 〈檀香刑後記〉; 莫言 《檀香刑》, 위책 379쪽.

전체 정치아래 억압당하고 왜곡되는 인간의 모습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치비극·인성 비극은 하나의 戲曲으로 연출된 ‘刑罰劇’ 속에 고스란히 응집되었으니 그 무대는 바로 北京이라는 거대한 정치의 공간이고 주인공은 망나니와 죄인이며 관객은 통치자와 일반 백성이다. 특히 ‘刑罰劇’ 속에서 공포심을 조성하면서 울려 퍼지는 섬뜩한 권력의 獨奏는 山東 高密縣의 猫唱(고양이 노래)의 소리와 함께 이 소설 전체를 매우 강하게 압도하고 있다.

刑罰은 범죄의 예방보다는 국민 통제라는 좀 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sup>3)</sup>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권력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두려움을 조성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통치권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淸末에 무능과 부패로 인해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왕조는 통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많은 잔혹한 형벌을 자행하였다. 《檀香刑》에는 무능한 淸 왕조의 모습이 나약한 황제의 모습에 은근히 빗대어 있다. 황실의 새총을 훔친 한 내시에게 「이 놈아! 내가 네 놈의 8대 조상 아랫도리까지 문질러 버리겠다! 쥐가 고양이를 핥으면서 간이 저절로 커졌구나! 감히 황실의 물건을 도둑질을 해?」<sup>4)</sup>라고 욕을 하는 황제의 모습 속에서 위엄과 권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썰 새 없이 기침을 하며 형벌을 실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깡마른 얼굴의 황제에 대한 묘사도 그러하다. 위엄을 잃은 황제의 모습과 썰 새 없이 기침을 하는 쇠약한 황제의 모습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 淸 왕조의 모습과 교묘히 일치된다.<sup>5)</sup>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淸 왕조는 권력유지를 위해 여러 잔인한 형벌로 관리들과 백성을 통제하였다.

山東에 철로를 부설하러 온 독일 총독의 풍자 섞인 칭찬 속에서도 이와 같은 정치비극을 여실히 간과할 수 있다.

중국은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지만 형벌만큼은 가장 발달되어 있지요. 중국인은 이 방면에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죄인에게 최대의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국의 예술이지요. 그리고 중국 정치의 정수이기도 하구요.<sup>6)</sup>

3) 티모시브룩 외, 박소현 역 《능지처참》(서울, 너머북스, 2010), 48쪽.

4) 莫言 《檀香刑》: 「小蟲子, 朕日你八輩子祖宗! 爾真是老鼠舔弄猫腓眼, 大了胆子! 竟敢偷到朕的家裏來了。」(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2쪽.

5) 黃世權, 〈多元文化互滲時期的寫作策略〉; 《理論與創作》2005년 제4기, 12쪽 참조

《檀香刑》에서 더욱 주목할 만 한 점은 형벌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목적 외에도 생생한 戲曲으로 연출되어 통치자들의 즐거움을 위한 하나의 오락이 되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의 압력과 요구에 의해 형벌은 하나의 戲曲으로 만들어져 무대 위에 올려지고 권력의 위대함이 입증된 ‘刑罰劇’을 보고 통치자들은 흡족해하는 것이다.

淸 황제는 죄인을 처형하기 전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수한 방법을 동원 하라고 명령한다. 황제의 명령을 대신해 한 관리는 망나니들에게 「이 기물은 과연 대단하구나. 그러나 너무 빨리 죽는다!.....집행 과정을 길게 연장해야 하느니라. 적어도 두 시간은 되어야 하고 희곡보다 더 재미있어야 한다.....죄인이 온 몸에 땀을 흘리게 하고 너희 망나니들도 땀을 흘리는 그런 희곡을 해야 한다.」<sup>7)</sup>고 요구한다. 이렇게 통치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刑罰劇’은 삶과 죽음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비극적인 희곡으로 인간이 이렇게까지 사악할 수 있다는, 가장 잔인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권력의 요구에 따라 ‘刑罰劇’을 직접 연출하는 자, 아울러 죄인과 함께 ‘刑罰劇’의 주인공이기도 한 자는 망나니이다. 통치권이 위협 당할수록 통치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잔인한 형벌을 요구하니 이에 부응하기 위해 망나니는 더 새롭고 더 흥미로우면서도 더 잔인한 ‘刑罰劇’을 구상한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아래 형벌 방식이 다양해지고 刑術도 발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망나니는 잔인한 형벌을 받고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처참한 죄인의 모습, 새롭고 흥미로운 ‘刑罰劇’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통치자의 모습, 잔혹한 형벌 앞에 공포와 위협을 느끼는 백성의 모습 등을 기대하면서 ‘죄인의 처벌’이라는 법률적인 의미를 ‘형벌극 감상’이라는 심미적인 의미로 변하게 하여 통치자에게 여러 ‘섬뜩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하는 것이다.<sup>8)</sup>

6) 莫言《檀香刑》:「中國甚麼都落後,但是刑罰是最先進的,中國人在這方面有特別的天才,讓人忍受最大的痛苦才死去,這是中國的藝術,是中國政治的精髓……」(北京,當代世界出版社,2004),83쪽.

7) 莫言《檀香刑》:「這件家什果然有些勵害,但死得太快了……必須把執行的過程延長,起碼要延長到一個時辰,要讓它比戲好看…….要讓那個小蟲子把全身的汗水流干,你們兩個也要大汗淋漓。」(北京,當代世界出版社,2004),35쪽.

8) 洪治綱〈刑場背後的歷史〉:楊揚編《莫言研究資料》(天津,天津人民出版社,2005),290쪽 참조.

‘觀刑’을 ‘看戲’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변태적인 심리는 중국의 형벌이 이미 권위와 권력 남용의 정치 부호가 되어 통치자가 즐거움을 취하는 병태적인 방식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법률의 역사적인 작용을 전복시키는 동시에 권력의 역사적인 작용도 전복시키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이에 莫言은 형벌 과정을 풍자적으로 자세히 기록하여 권력과 역사 문명에 전면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sup>9)</sup>

《檀香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망나니는 여주인공 孫眉娘의 시아버지인 趙甲이다. 15세에 고향인 山東 高密縣을 떠나 北京으로 간 후 우연한 기회에 망나니가 된 그는 통치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온갖 잔인한 형벌을 구상하여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통치자는 피통치자를 절대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피통치자의 독립적인 감정과 의지가 소멸되기를 바란다. 단지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물질적, 동물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면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0)</sup> 망나니 趙甲이 바로 그러했다. 그에게 있어서 형벌 집행은 통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었다. 통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형벌을 얼마만큼 재미있게 연출하느냐가 중요했다. 아울러 강력한 공포와 위협을 띤 곡조에 맞춰 형벌을 얼마만큼 잔인하게 연출하느냐도 중요했다. 이렇게 하려면 자신은 차가운 기계처럼 감정이 전혀 없어야 했고 범인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사물로 보아야 했다. 매번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빨간 옷을 입고 닭 피를 얼굴에 바르는 의식을 거행하고 나면 그의 「마음은 깊은 늪 속의 검은 돌처럼 차가워지고, 움직이는 것은 뜨거움과 감정이라곤 전혀 없는 살인 기계였고」<sup>11)</sup> 범인도 더 이상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줄 한 줄의 근육과 오장 하나하나와 한 올 한 올의 골격만 있는 살덩어리일 뿐이었다」.<sup>12)</sup>

살인기계와도 같았던 조갑에게 형벌은 바로 신성한 技藝로 그는 형벌에 대한 구상, 세심한 준비, 정교한 처형 장면 등 모든 형벌 과정을 미학적 연출로 보았다.<sup>13)</sup>

9) 洪治綱, 〈刑場背後的歷史〉: 楊揚編《莫言研究資料》, 앞 책 290쪽.

10) 謝有順, 〈當死亡比活着更困難〉: 楊揚編《莫言研究資料》, 위 책 272쪽.

11) 莫言《檀香刑》: 「自己的心, 冷得如深潭裏的一塊黑色的石頭……活動着的, 只是一架沒有熱度和情感的殺人機器。」(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191쪽.

12) 莫言《檀香刑》: 「只有一條條的肌肉, 一件件的臟器和一根根的骨頭。」(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166쪽.

그는 「황제와 귀부인들은 죄인들이 형벌을 받을 때 내는 늑대 소리를 듣기 좋아 한다」<sup>14)</sup>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쇠가죽으로 만든 철 테로 머리를 죄어 죽이는 형벌을 시행할 때 「암암리에 쇠가죽 줄을 늦추었다가 당기곤 했으니」<sup>15)</sup> 소설 속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 내는 뛰어난 악사였다.

망나니와 죄인은 명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같으니 망나니가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하면 죄인은 이에 맞춰 '가락 있는 목소리로 알맞고 분명하게' 소리를 질러 줘야 생동감 있는 희곡이 되었다. 이에 스승으로부터 한 아름다운 여인을 처형하던 이야기를 전해들은 趙甲은 「그 날 스승은 일을 멋지게 했고 그 여인도 자신의 역할을 잘 해 주었다, 그것은 사실 한 편의 희곡으로 망나니와 죄인의 합작으로 연출되었다. 연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죄인이 너무 소리를 질러도 좋지 않은 것이며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것이다」<sup>16)</sup>고 했다. 만약 죄인의 소리가 없다면 병어리극이나 다름없이 되어 버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한 도살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망나니의 연주에 맞춰 나오는 죄인의 고통에 찬 신음 소리는 엄청난 공포를 조성하며 백성과 관리들을 향해 강력한 위협과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으니 이때 '刑罰劇'은 비로소 강한 권력의 獨奏가 울려 퍼지는 완벽한 '정치 희곡'이 되는 것이다.

통치자의 정권 유지를 위한 압력과 부와 명예를 위한 개인의 이익이 합쳐지면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뛰어난 망나니가 탄생되고 그 망나니에 의해 가장 정교하고 가장 비극적인 희곡이 연출되었다. 趙甲은 이러한 희곡의 연출자로 매우 자부심을 느꼈고 결국 황제 앞에서 망나니들을 刑部의 일부분으로 편입시켜 매달 월급을 주고 아울러 퇴직 제도도 세워 주도록 감히 요구하기까지에 이른다. 이는 기형적으로 발전한 정치문화가 양육해 낸 왜곡된 인간의 모습으로<sup>17)</sup> 이를 통해 부패한 통

13) 謝有順, 〈當死亡比活着更困難〉; 楊揚編《莫言研究資料》, 앞 책 272쪽.

14) 莫言《檀香刑》: 「我們知道皇上和娘娘們就喜歡聽這狼嗥聲。」(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42쪽.

15) 莫言《檀香刑》: 「就暗暗地一緊一松。」(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42쪽.

16) 莫言《檀香刑》: 「那天的活兒, 師傅干得漂亮, 那女人配合得也好. 這實際上就是一場大戲, 劊子手和犯人聯袂演出, 在演出的過程中, 罪犯過分地喊叫自然不好, 但一聲不吭也不好。」(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175쪽.

치권 아래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점점 살인 기계가 되어 가는 한 인간의 철저한 인성과괴를 엿볼 수 있다.

희곡 공연이 무대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형벌도 당연히 刑場을 떠날 수 없다. 형술 자체의 독창성, 망나니의 표현력, 관객의 감상 심리가 합쳐진 형장은 일반적인 의미의 범인을 처형하는 공개적인 장소도 아니고, 전제정치의 위엄을 드러내는 儀式장소도 아닌, 특수한 배역들이 어우러져 삶과 죽음의 대 희곡을 연출하는 무대였다. 그곳은 많은 사람이 모여 생명의 축제를 감상하는 문화광장이었다. 이러한 공연은 단지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살인의 감상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형장에서의 살인은 국가의 권력과 존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예술 그 자체였다.<sup>18)</sup>

이때 망나니는 백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刑罰劇' 공연 속에 백성은 주된 관객이었다. 백성은 통치자들이 잔인한 형벌을 통해 통치 권력의 힘을 입증하고자 하는 중요한 대상이었으니 형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관객인 것이다. 더군다나 백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刑罰劇'의 참여자이기도 했다. 잔인한 권력의 獨奏가 울려 퍼지는 공연을 멍하니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우매함과 함께 감상의 사악함도 드러났다. 그들은 통치자와 더불어 망나니의 표현력과 창조력을 자극시켜 형벌이 미학가치와 감상가치가 있는 희곡으로 연출되게 했다.<sup>19)</sup> 어쩌면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보다 더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망나니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고발되고 있다.

스승의 말에 의하면 아름다운 기녀를 능지처참하던 날, 북경 성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야채시장 형장에서 밟혀 죽은 구경꾼만 해도 스무 명이었다고 한다. ……한 스승의 말이…… “만약 네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면 분노한 구경꾼들이 너를 산 채로 물어서 죽일 것이야. 북경의 관객들은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들이야”……스승은 오랫동안 많은 죄인을 죽이면서 하나의 도리를 깨달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한쪽 면은 인의도덕에 삼강오륜상이지만 또 다른 한쪽 면은 남자는 도둑이고 여자는 창녀이며 향락만을 추구한다고 했다. 칼에 도려지는 미녀의

17) 韓琛 〈歷史的挽歌與生命的絕唱〉; 《小說評論》 2002년 제1期, 65쪽.

18) 洪治綱 〈刑場背後的歷史〉; 楊揚編 《莫言研究資料》, 앞 책 294쪽.

19) 謝有順, 〈當死亡比活着更困難〉; 楊揚編 《莫言研究資料》, 위 책, 279쪽.

육체를 보려고 나온 군중은 도덕군자이거나 요조숙녀이거나간에 모두 그 사악한 맛에 격동된다고 했다. 20)

이러한 까닭에 망나니는 통치자와 백성의 감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刑罰劇’을 멋지게 연출해야 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을 처형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죄인을 어떻게 처형하느냐’였다. 즉, 어떻게 죄인에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느냐, 어떻게 이 과정을 통치자가 요구한 날까지 지속시키느냐, 어떻게 형벌 장면을 백성들에게 극대화 시켜 보여 가장 두렵고 위협적인 효과를 창출하느냐가 중요했으니 망나니는 심혈을 기울여 형벌과정을 생생하게 듣고 볼 수 있는 한 편의 희곡으로 연출하였던 것이다.

망나니는 형벌을 미학의식으로 바꾸고, 관객들은 어느 정도의 동정심과 사악한 감상 욕구를 통해 이러한 미학의식을 감상가치로 전환시켰다. 관객들의 감상의 소비행위를 통해 형벌은 점점 일상생활속의 중요한 축제가 되었고 공연과 감상이 서로 자극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인성은 결국 파멸로 치달리게 되었다. 21) 형벌은 이미 징벌의 의미를 뛰어 넘어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가운데 어떤 대상을 감상하는 놀이가 되었으니 이는 ‘文化’ 자신의 ‘異化’라 할 수 있다. 22)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잔혹한 형벌을 가하는 통치자, 권력의 요구 속에 형벌을 하나의 희곡으로 연출하는 망나니, 이렇게 연출된 ‘刑罰劇’에서 울려 퍼지는 권력의 독주를 그저 멍하니 들을 수밖에 없는 우매함과 함께 사악한 감상 욕구를 드러낸 관객의 모습은 중국 전제정치와 비극과 인성비극을 드러내고 있다.

莫言은 刑罰이라는 어두운 정치의 한 부분을 희곡무대에 올려 만 천하에 공개함으로써 淸 왕조 말기의 부패한 정치상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중국 전제정치와 잔혹함과 이로 인해 탄생된 형벌 역사의 비극을 폭로하고 있으며 통치 권력 앞에서 가

20) 莫言《檀香刑》:「師傅說凌遲美麗妓女那天,北京城萬人空巷,菜市口刑場那兒,被踩死,擠死的看客就有二十多個,……你如果活兒干得不好,憤怒的看客就會把你活活咬死,北京的看客那可是世界上最難伺候的看客.……師傅說他執行數十年,殺人數千,才悟出一個道理.所有的人,都是兩面獸,一面是仁義道德,三綱五常,一面是男盜女娼,嗜血縱欲.面對着被刀刀割着的美人身體,前來觀刑的無論是正人君子還是節婦淑女,都被邪惡的趣味激動着。」(北京,當代世界出版社,2004),175쪽.

21) 謝有順〈當死亡比活着更困難〉:楊揚編《莫言研究資料》,앞 책 272쪽.

22) 季桂起〈論莫言檀香刑的文化內涵〉:《齊魯學刊》,2004년 제1기,41쪽.



장 극단적으로 왜곡된 인성비극도 신랄히 고발하고 있다.

### Ⅲ. ‘地方劇’ ‘猫唱’: 民間의 合奏

《檀香刑》에는 ‘刑罰劇’에서 울려 나오는 공포의 獨奏 소리와는 다른, 활력이 넘치고 원시적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山東 高密縣의 지방극 猫唱(고양이 노래)의 신비로운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다.

지방 희곡은 오락체계가 그다지 발달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의 민중오락이자 감정 교류의 중요한 방식이다.<sup>23)</sup> 山東 지역에서 유행하는 지방극인 猫唱 역시 그곳 사람들의 감정 교류와 감정 표출 방식이자, 슬플 때는 위안을 주고 기쁠 때는 기쁨을 더 증가시켜 주는 민간오락이었다.

山東 高密縣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猫唱(고양이 노래)의 유래는 매우 신비한 색채를 띠고 있다. 한 마리 검은 고양이와 외롭게 살아가던 常茂는 친구의 장례식에서 우연히 곡을 했었는데 그의 곡소리가 너무 애절해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했다. 이후 사람들은 장례식에 常茂를 초청해 곡을 부탁했다. 매번 귀한 손님 대접을 받은 常茂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곡을 했고 곡을 하면 할수록 그 소리는 정교해지고 깊어져 갔다. 마침내 그는 수리공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이 되었다. 곡을 할 때면 그가 늘 데리고 다니던 고양이도 옆에서 구슬프게 울부짖곤 했는데 그 고양이의 목소리도 천하에 둘도 없는 특이한 목소리였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고양이 창이라고 했다. 나중에 고양이가 죽자 그는 매우 비통해했고 이후 곡을 하러 갈 때면 늘 두 장의 고양이 옷을 만들어 하나는 머리에 쓰고 하나는 몸에 걸치고 다녔으며 걷는 모습이나 말하는 어조도 고양이를 모방했다. 후에 그가 죽을 때 날개 돋친 한 마리 고양이로 변해 창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마당에 서 있는 큰 나무 위에 올라간 후 곧바로 달을 향해 날아 올라갔다고 한다.<sup>24)</sup>

山東 高密縣이 고향인 莫言이 猫唱(고양이 노래)에 대해 어릴 적부터 친근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高密縣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인 지방극 猫唱(고양이 노래)은 莫言이 고향을 떠나 온 후에도 늘 그의 의식세계에 머물러 있다가

23) 韓琛 〈歷史的挽歌與生命的絕唱〉; 《小說評論》2002년 제1期, 61쪽.

24) 莫言, 〈檀香刑〉, (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12-313쪽 참조

결국 작품 세계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莫言은 표현이 독특하고 어조가 구성진 猫唱(고양이 노래)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고향 동북 향촌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고양이 울음소리를 낼 줄 알았어요. 그 구성지고 처량한 선율은 일부러 공부를 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진실에 의하면 타향살이에 지친 한 노파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한 고향 친척이 가져다준 고양이 울음소리가 담긴 녹음테이프를 틀어주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눈에 광채가 이글이글 빛났대요. 고양이 울음소리가 끝나자 노파는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대요. 고양이 울음소리는 우리 고향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든 한 같은 소리랍니다.<sup>25)</sup>

고양이 울음소리는 高密縣 사람들의 삶속에 녹아든 한 같은 소리이기에 작가는 소설 속 한 등장인물을 통해 「고양이 노래를 듣지 않는다면 高密 東北 향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고양이 노래의 역사를 모른다면 우리 高密 東北 향촌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sup>26)</sup>이라 했다.

猫唱(고양이 노래)의 민간예술형식은 莫言의 독특한 소설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니 《檀香刑》은 먼저 鳳頭部·猪肚部·豹尾部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鳳頭部는 다시 4장으로, 猪肚部는 9장으로, 豹尾部는 5장으로 나뉘어지는 說唱의 회곡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高密縣 사람들이 등장할 때도 猫唱(고양이 노래)을 섞어 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說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중요한 것은 서술방식이 아니라 猫唱이 때때로 민간의 언어가 되어 기쁨·환희·슬픔·분노 등 민간의 감정을 나타내고, 민간의 정신세계를 표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高密縣 사람들은 소설 곳곳에서 猫唱(고양이 노래)을 섞어 가

25) 莫言 《檀香刑後記》: 「高密東北鄉無論是大人還是孩子, 都能够哼唱猫腔, 那婉轉凄切的旋律, 幾乎可以說是通過遺傳而不是通過學習讓一輩輩的高密東北鄉人掌握的. 傳說在她生命垂危的時候, 一個從老家來的鄉親, 帶來了一盤猫腔的磁帶, 她的兒子就用錄音機放給她聽, 當那曲曲折折的旋律嚮起來時, 命若游絲的老奶奶忽地坐了起來, 臉上容光煥發, 目光炯炯有神, 一直聽完了磁帶, 才躺倒死去。」(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78쪽.

26) 莫言 《檀香刑》: 「不聽猫腔, 就不了解俺高密東北鄉, 不知道猫腔的歷史, 就不可能理解俺們高密東北鄉人民的心靈。」(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13쪽.

며 서로 다른 각자의 삶과 감정을 쏟아 내니, 음색이 다른 악기들로 연주된 기쁨과 환희의 소리, 비통의 소리, 분노의 소리 등이 교묘히 조화를 이룬 습奏를 듣는 듯하다. 高密縣은 猫唱(고양이 노래)의 선율에 휩싸인 신비로운 곳으로 그 무대는 마을 곳곳이었고 주인공 역시 마을 사람들이었으며 관객도 마을 사람이었다.

高密縣의 民間文化를 대표하는 猫唱(고양이 노래)에는 高密縣의 民間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陳思和 선생이 民間문화는 「권력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활기찬 형식을 보존할 수 있었고 비교적 진실하게 民間사회생활의 면모와 하층민민의 정서세계를 나타낼 수 있었다.」<sup>27)</sup>고 한 것처럼 猫唱(고양이 노래)에는 高密縣의 民間 정서 즉, 어떤 속박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활기차고 강렬한 원시생명력이 드러나 있다.

망나니 趙甲의 며느리이자 高密縣의 희극단 단장 孫丙의 딸인 孫眉娘은 高密縣으로 부임해 온 현령 錢丁을 사랑하게 된다. 현령은 위풍당당한 관리이고 자신은 천한 백정의 부인이면서 전족을 하지 않은 큰 발 때문에 늘 움츠려드는 여자였지만 현령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다. 이에 「오! 내 사랑아, 내 보배, 저는 당신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가엾게 생각해 주세요. 한 번 보고 그를 사모하게 되었으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야. 그를 안고 싶어 몸이 근질거려.」<sup>28)</sup>라며 애 닳은 목소리로 연기하듯 반복해 읊조렸다.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버지 일을 핑계 삼아 개고기를 삶아 현령을 찾아가게 되면서 현령과의 뜨거운 사랑이 시작된다. 한 남자의 선택에 의해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여느 여인네와는 달리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 주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현령에게도 부인이 있었다. 부인은 曾國藩의 증손녀로 존엄과 부귀, 윤리와 도덕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孫眉娘의 표현대로 뒤뜰의 인형이나 조각품일 뿐 현령의 사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단 하나 그녀는 전족을 한 예쁜 발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남편이 천한 백정 부인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그녀는 전족을 한 발로

27) 陳思和 〈莫言近年小說的民間敘述〉: 楊揚編, 《莫言研究資料》, 앞 책 343쪽.

28) 莫言 《檀香刑》: 「我的親親, 我的心肝, 我快要把你死死了. 你行行好, 可憐可憐我吧....看你一眼就愛上, 三生也難忘. 饑得心痒痒」(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115쪽.

孫眉娘을 제압하려 했지만 정작 남편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예쁜 전족의 발을 알아주지 않는다.

늘 큰 발 때문에 움츠렸던 孫眉娘은 자신의 큰 발을 좋아하는 현령의 사랑을 얻게 되면서 더 이상 큰 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淸明節에 큰 발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그녀를 타면서 이 기쁨을 猫唱(고양이 노래)으로 노래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발의 매력을 보여 줄 거야!.....그네란 무엇인가? 그네란 바로 움직이는 무대이며 그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 몸매를 마음껏 표현하고 여러 사람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여자는 그녀를 능숙하게 타면서 애교를 부리고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나는 신선같이 훨훨 나는 느낌 이었죠~~. 내 어깨에는 새들의 날개가 붙어 있었고 내 가슴에는 새의 깃털이 수북했어요.~~ 정말 자유스럽고 편안했죠. 신선이 된 기분이었어요.~~ 집엔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성실한 남편이 있어요. 밖에는 권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정하고 재미있는 애인이 있어요.~~ 나는 그 애인과 함께 술 마시고 싶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어요. 울거나 웃거나 놀거나 떠들거나 누구도 나를 말릴 사람이 없어요~~29)

자신이 원하던 사랑도 얻게 되고 전족이라는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된 자유로운 영혼의 외침이다. 사랑에 대한 열정과 넘치는 생명력, 대담하고 생동적인 성격이 猫唱(고양이 노래)을 통해 오롯이 드러나 있다.

마을의 현령은 孫眉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를 늘 짓누르고 있던 도덕·존엄·윤리·체면 등을 모두 벗어 던졌다. 보잘 것 없는 민간의 한 여인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원시적 열정에 불길을 당긴 것이다. 활력이 넘치는 열정과 생명력을 지닌 孫眉娘과의 사랑은 현령 錢丁에게 예교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늘의 신선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환희를 느끼게 했으니 猫唱(고양이 노래)에 대해 다소 생소한 현령조차도 이러한 심정을 猫唱(고양이 노래)으로 쏟아내고 있다.

29) 莫言《檀香刑》:「讓你們這些孩子們看看大腳的好處吧!....., 秋千架是甚麼?秋千架就是飄蕩的戲臺子, 上去就是表演, 是展覽身段賣臉蛋子,.....是女人們撒嬌放浪的機會.....俺感到飄飄欲仙, 鳥兒的翅膀變成了俺的雙臂, 羽毛長滿了俺的胸膛,.....真恣悠啊, 真舒坦啊, 成了仙啦.....俺家裏有一個忠厚老實能擋風能遮雨的丈夫, 外邊有一個既有權又有勢, 既多情又多趣的相好. 想酒就喝酒, 想肉就吃肉, 敢哭敢笑敢浪敢鬧, 誰也不能把俺怎麼着。」(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16-17쪽.

孫眉娘을 알게 된 후부터 오랜 가뭄에 시달리던 새싹이 단비를 맞은 것 같구나. 네 좋은 점은 말로 다 못한다~~삼복의 너는 한 사발의 얼음이고 엄동설한의 너는 한 덩어리 불이란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너와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지. 살아서 孫眉娘을 한번만 안고 잘 수 있다면 하늘의 신선도 부럽지 않네~~30)

근엄하고 정숙한 부인이지만 사랑 앞에선 얼음처럼 차가운 부인과는 달리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사랑의 기쁨과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산동 지역은 유가문화의 발상지로 예교의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는 곳이다. 하지만 일반 민중의 삶속에서는 전통 유가사상에 의한 도덕적 잣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예교의 엄격한 속박도 신선하고 활발한 생명 본성을 지배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도덕이나 법률 등 문화적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 생명의 본능적인 요구에 따라 행동했다.<sup>31)</sup> 이러한 분위기 아래 결국 현령은 「큰 발이 작은 발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라. 나는 낡은 풍속을 뜯어 고쳐 우리 마을의 여인들이 다시는 발을 동여매지 못하게 할 것」<sup>32)</sup>이라고 선언하게 된다. 莫言은 현령 錢丁을 통해 자유로운 인성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롭고 활발한 생명력, 즉 원초적인 욕망에 대한 본능과 활력이 넘치는 고밀현의 문화적 분위기는 늘 예교에 억압되고 구속받는 지식인 錢丁의 인성을 회복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니 錢丁은 전족을 강요당하는 여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高密縣에서 만큼은 이러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고자 했던 것이다.

貓唱(고양이 노래)에는 기존의 질서 체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하층민의 소박한 민간 이상도 담겨 있다.<sup>33)</sup> 이는 高密縣 지역의 독특한 풍습인 '거지 명절'을 통해

30) 莫言 《檀香刑》: 「自從結識了孫氏女, 如同久旱的禾苗逢了甘霖……你的好處說不完, 三伏你是一砣冰, 三九你是火一團. 最好好在解風情,……爲人能摟着孫家眉娘睡一覺, 勝過了天上的活神仙。」(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02쪽.

31) 魏建·賈振勇 《齊魯文化與山東新文學》(湖南, 湖南教育出版社, 1995), 246쪽.

32) 莫言 《檀香刑》: 「讓他們知道, 大脚比小脚更好看, 錢某人要移風易俗, 讓高密女人不再纏足。」(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17쪽.

33) 喬明濤, 〈莫言創作的狂歡情結與民間品性〉; 《寧波職業技術學院學報》2007년 제11권 4기 82쪽.

알 수 있다. 매년 8월 14일 ‘거지 명절’날이 되면 거지들은 붉은 종이로 만든 관을 쓰고 황금색 비단으로 만든 용포를 입고 마을 곳곳을 행진한다. 이 날만큼은 이러한 대역무도함도 용서가 되었다. 또 거지들은 위풍당당한 병사들 사이를 두려움 없이 지나가고 관리의 행렬도 거지들을 만나면 소리 없이 길을 비켜주니 이 날만큼은 거지들이 어른이고 관리인 셈이다. 행진을 할 때 그들은 의미심장한 가사의 猫唱(고양이 노래)을 노래한다.

머리에 신을 이고 발에 모자를 쓰고 곡조가 뒤바뀐 내 노래를 들어라. 야옹~~ 야옹~~아들이 며느리를 맞고 어머니가 효도를 받는구나. 대인이 물러나고 우리가 가마를 탄다~~ 야옹~~야옹~~쥐가 고양이를 쫓으면서 길거리를 뛰어다니더니, 유월 삼복에 눈이 내리는구나! 야옹~~야옹~~<sup>34)</sup>

거지들이 가마를 타고 대인은 오히려 그 가마의 행렬을 보고 물러나며, 늘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가 오히려 고양이를 쫓는다는 재미있는 가사를 통해 이날만이라도 일반적인 질서 체제를 거스르고 싶어 하는 사회 하층 민중의 소박한 바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猫唱(고양이 노래)은 때로는 진솔하게 때로는 익살스럽게 高密縣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猫唱은 猫唱 회곡단의 단장이자 여주인공 孫眉娘의 아버지인 孫丙의 삶과도 같았다. 통치권 영역에서 다소 벗어나 평화롭게 지내던 산동 지역에 어김없이 밀어닥친 근대화의 물결은 孫丙은 물론 마을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 高密縣으로 들어온 독일군이 거리에서 자신의 처를 능멸한 장면을 목격한 孫丙은 그 독일군을 죽이게 되면서 세찬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아무 일 없을 거라며, 위로를 했지만 사실 자신도 그 거대한 독일 열강의 힘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이 매우 컸다. 불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한데 아내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할까?~~ 아! 나의 고통 회복을 알 길 없으니 내 아내의 생사를 가늠하기 어렵구나~~ 아! 두려움에 온몸이 땀으로 젖은 나는 몸을 씻은 듯하고 애타는 마음은 기름에 직직 타는구나!

34) 莫言《檀香刑》:「頭穿靴子脚戴帽,聽俺唱段顛倒調——咪嗚咪嗚——兒娶媳婦娘穿孝,縣太爺走路咱坐轎——咪嗚咪嗚——老鼠追猫滿佳跑,六月裏三伏雪花飄——咪嗚咪嗚」(北京,當代世界出版社,2004),279쪽.

~~」<sup>35)</sup>라고 부르는 猫唱의 소리는 처연하기만 하다.

猫唱의 슬픈 선율과 孫丙의 불안한 운명이 하나가 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을사람들의 보호 속에 홀로 도망을 나와 마을에 있는 버드나무 숲속에 숨어 지내다가 독일군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할 때에도 역시 울분에 가득한 비장한 猫唱을 쏟아내었다.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절망할 때면 늘 猫唱으로 감정을 쏟아 내곤 했다. 그의 모든 생명과정은 猫唱 그 자체로, 猫唱은 독특하면서도 과란만장한 孫丙의 생명형식의 상징이었던 것이다.<sup>36)</sup> 복수를 결심하고 고향을 잠시 떠났다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고향에 다시 돌아온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분연히 일어나 독일군에게 항쟁할 것을 권하면서 猫唱을 노래했고 이러한 노래는 마을 사람들의 항쟁의 불길을 당겼다. 마을사람들은 항쟁의 의지를 불태우며 이렇게 노래했다.

正南에서 검은 회오리바람이 불어 왔네~~ 그것은 洪太尉가 보내온 흰 고양이  
 훈이라네! 흰 고양이 훈아! 흰 고양이 훈아~~ 살아있을 때는 흰 털에 붉은 눈이  
 었네~~ 우리들의 피를 빨아 먹으려 했네~~ 太上의 영이 나타나시어~~ 신성  
 한 무술을 가르쳐 청나라를 보호 하시네~~흰 고양이 훈을 씻어 주고~~ 껌질을  
 벗기고 눈알을 빼내 하늘 밝힐 등불을 켜다네~~<sup>37)</sup>

猫唱은 열강의 침입에 대해 분노하고 저항하는 비통의 소리이자 뜻을 모아 한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생명력의 소리였다. 「東北 高密縣 토착민의 집체무의 식의 외재적인 예술표현양식으로 생기발랄하고 신비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원시 祭歌와도 같은」<sup>38)</sup> 猫唱은 바로 高密縣 사람들의 예술언어가 되어, 개개인의 기쁨·

35) 莫言 《檀香刑》: 「望家鄉去路遙遙, 想妻子將誰依靠, 俺這裏吉凶未可知, 哦呵她, 她在那裏生死應難料. 呀! 嚇得俺汗津津身上似湯澆, 急煎煎心內熱油熬。」(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143쪽.

36) 蘇忠釗 〈論莫言小說‘檀香刑’中的生命意識〉: 《哈爾濱學院學報》2007년 제28권 1기, 83쪽.

37) 莫言 《檀香刑》: 「正南刮來了一股黑旋風~~那是洪太尉放出的白猫精~~~白猫精啊白猫精——生着白毛紅眼睛~~要把咱們的血吸淨~~太上老君來顯靈——教練神拳保大清——殺淨那些白猫精——剝皮挖眼點天燈」(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238쪽.

38) 蘇忠釗 〈論莫言小說‘檀香刑’中的生命意識〉: 《哈爾濱學院學報》2007년 제28권 1기, 83쪽. 재인용

환희·이쁨·슬픔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입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분노와 저항 등도 모두 담아내고 있는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민간의 소리인 것이다.

권력의 공간, 정치의 공간인 북경에서는 잔인한 ‘刑罰劇’의 獨奏가 울려 퍼졌다면 高密縣에서는 몇 천 년 동안 중국을 지배해 온 예교의 속박을 벗어 던진 후 느낀 자유에 대한 환희와 생명력 넘치는 활력, 한 개인의 이쁨과 상처, 열강에 짓밟힌 마을 사람들의 분노, 더 나아가 한 민족의 고난과 항쟁의 열정 등을 주제로 한 각각의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며 합주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다. 이 소리들은 신비한 지방문화의 특색을 드러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소설에 음악미를 더해 주어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게 했고, 또 高密縣 사람들의 언어와 몸짓으로 구현되어 소설 곳곳에 민간인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게 하고 있다.

#### IV. ‘檀香刑劇’: 권력과 민간의 二重變奏

권력의 소리와 민간의 소리가 北京과 高密縣에 각각 울려 퍼지다가 만나니 趙甲과 독일군이 高密縣에 등장함으로 인해 두 소리는 같은 희곡무대에서 울려 퍼지게 된다. 猫唱의 선율 속에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가던 高密縣에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 들어온 독일군과 은퇴 후 고향 高密縣으로 돌아온 망나니 趙甲의 등장은 이 마을에 닥칠 비극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독일군의 등장으로 「선조의 무덤이 곧 파헤쳐지게 될 것이고 흐르던 물길이 막힐 것이며, 천년동안 내려오던 풍수도 이제 곧 파괴될 것이고…… 관리들도 대부분 서양 사람들의 앞잡이니 곧 고통스런 세월이 닥칠 것이다.」<sup>39)</sup>고 한탄을 한다. 망나니 趙甲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거리로 나가면 사람을 물어대던 미친개들도 벽 모퉁이에 움츠리고서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고, 조잡이 길 옆 버드나무를 만지면 나뭇잎들이 정신없이 흔들리면서 사각사각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것 역시 심상치 않은 징조이다.

자신의 처를 능멸한 독일군을 죽이고, 아내와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고향을 잠시 떠났다가 세력을 규합해 다시 돌아와 독일군에 항거

39) 莫言《檀香刑》:「祖先的墳墓就要被鎮壓, 泄洪的水道就要被堵塞, 千年的風水就要被破壞……父母官都是洋人的走狗, 百姓們的苦日子就要來臨。」(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152쪽.



하던 孫丙은 결국 붙잡히고 만다. 사형집행을 맡은 자는 바로 사돈지간인 망나니 趙甲이다. 독일 군 총독은 孫丙이 형벌을 받은 후에도 기차선로가 놓이는 날까지 5일 더 살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는 형벌을 요구한다. 이에 趙甲은 또 다시 통치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고향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즉, 박달나무로 만든 썰기를 죄인의 항문에 박아 넣고 그것이 목덜미로 튀어 나오게 한 후에 다시 나무에 매달아 며칠 동안 있게 하는 ‘檀香刑(박달나무 형벌)’을 연출하기에 이른다. 趙甲은 천하의 사형 방법 중에서 ‘檀香刑(박달나무 형벌)’보다 더 정교한 것은 없고, 전국을 다 뒤진다 해도 ‘檀香刑(박달나무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망나니는 자신 말고 아무도 없으며,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공연된 적이 없고 나중이라도 더 이상 공연될 수 없는 희곡이라고 우쭐대며 ‘檀香刑(박달나무 형벌)’ 연출에 심혈을 기울인다.

딸 孫眉娘과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檀香刑’이라는 혹형을 받게 된 孫丙은 자신을 도우려다 죽게 되는 제자를 위로하며 「제자야! 지금 우리는 猫唱을 두 번째 좋은 창극으로 승화시켜 연출하고 있는 것이란다. 이 창극의 제목은 아마 ‘檀香刑’으로 불러야겠구나.»<sup>40)</sup>라고 한다. 망나니 趙甲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정교한 ‘檀香刑’을 연출하고자 할 때 ‘檀香刑’을 받게 될 孫丙은 오히려 ‘檀香刑’을 두 번째 猫唱으로 승화시켜 연출하고자 한다. 망나니와 孫丙에 의해 ‘檀香刑’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하지만 내용은 서로 다른 희곡이 연출되게 되었으니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다소 떨어져 비교적 평화롭던 高密縣은 권력과 민간의 소리가 엇섞이고 자유와 억압의 소리가 부딪히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孫丙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부터 ‘檀香刑’ 희곡은 그 서막을 열었다. 孫丙은 형장으로 가는 도중에도 猫唱을 노래했다.

앞뒤에서 사람들이 기세를 돋우고~~ 용포를 입고~~머리에는 금색 꽃 모자를 썼구나! 나는 이리저리 움직이고 허리에는 옥띠를 두르고 있다네~~ 저 돼지와 개들을 보아라! 누가 감히 나와서 나, 孫丙의 발을 차 넘어뜨릴 수 있을까~~<sup>41)</sup>

40) 莫言《檀香刑》:「好孩子, 咱們爺兩個正在演出猫腔的第二臺看家大戲, 這齣戲的名字也許就叫‘檀香刑」(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17쪽.

41) 莫言《檀香刑》:「前呼後擁威風浩——俺穿一件蟒龍袍, 戴一頂金花帽——俺可也擺擺搖搖, 玉帶圍腰——且看那豬狗群小, 有誰敢來踹俺孫爺的根脚」(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18쪽)

통치자들을 돼지와 개로 조롱하면서 조금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형장으로 향하는 孫丙의 기개를 엿볼 수 있는 猫唱이다. 그의 노래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한 데 어우러졌다. 이런 마을사람들의 모습에 통치자들의 얼굴은 회백색이 되었고 관가 병사들과 독일 병사들도 흠뻑이 되었다. 孫丙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 인생에 있어 한번만이라도 이런 연출이 있다면 나, 孫丙 죽어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sup>42)</sup>라고 외친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檀香刑’ 희곡을 연출해 통치자들에 대항하고자 했던 孫丙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檀香刑’ 형벌을 받은 후 나무에 묶였다. 간신히 목숨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孫丙은 계속 아내와 아이들을 죽인 독일군을 저주하는, 열강의 꼭두각시인 통치자들을 조롱하는,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키도록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猫唱을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병사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孫丙의 주위로 몰려들어 그의 노래 소리를 들었다. 孫丙의 노래 소리는 더욱 비장하고 청아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갖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孫丙의 노래 소리에 맞춰 각각 다른 음색의 猫唱(고양이 소리)을 불렀다. 북경의 형장에서처럼 사악한 감상에 젖어 살인의 현장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우매한 민중의 모습은 없었다. 그들의 猫唱(고양이 소리)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孫丙에 대한 존경과 지지가, 열강의 세력 앞에 너무도 무력한 袁世凱 정부에 대한 반항이, 독일군의 야만적인 무력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孫丙의 쉼 노랫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猫唱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독특한 곡조를 이루었다. 자유를 향한 그들의 노래 소리는 통치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高密縣 백성들을 위협하고자 통치자와 망나니에 의해 연출된 ‘檀香刑’은 孫丙과 마을사람들에 의해 그들만의 猫唱 ‘檀香刑’으로 바뀌어 오히려 통치자들을 위협했던 것이다.

孫丙이 형벌을 받은 후 넷째 날 희곡단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사부인 죽어가는 孫丙 앞에서 극을 연출하러 왔고 희곡단의 猫唱 소리가 울려 퍼지는 살기등등한 형장에서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42) 莫言 《檀香刑》: 「人生能有一次這樣的演唱, 孫丙死得其所啊!!」(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19쪽.

첫 몽둥이로는 太行山을 뒤엎고~~ 膠州灣을 평지로 만들었으며~~ 두 번째 몽둥이로는 萊州府를 쳐부수고~~ 백 호랑이를 놀래 죽게 하였으니~~ 세 번째 몽둥이로는 하늘 기둥을 무너뜨렸으며~~ 太上老君의 八卦爐를 뒤엎어 놓았으니~~ 야옹~~ 야옹~~야옹~~43)

민간의 위력을 드러낸 猫唱은 이내 엄청난 속도로 진파되었다. 마을에 울려 퍼진 猫唱의 소리는 백성들을 다시 형장의 회곡무대로 끌어 들였다. 백성들은 이곳이 천하제일의 잔혹한 형벌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듯 했다. 猫唱은 두려움도, 공포도 없애 주었고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었다. 猫唱으로 하나 되어 통치자와 독일군에게 대항하면서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민간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회곡 단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孫丙이 묶여 있는 승천대로 올라가자 위협을 느낀 독일 병사들은 총을 겨누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 쓰러졌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본 현령 錢丁은 망설임 끝에 孫丙을 죽여 독일군의 계획을 무산시키기로 한다.

나는 몸을 돌려 학교 운동장으로 걸어갔으며 다신 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달빛이 내 눈을 비춰주었으니 한마디의 판화가 파도치는 고양이 노래와 같았다. 고양이 노래는 비록 길지만 곡조가 분명한 그 선율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니 내 일거일동은 모두 널빤지 위에 밟혀 있다. 고밀현 현령 문을 나서니 비장한 장부 같구나~~ 야옹~~ 야옹~~ 야옹~~가을바람 불고 달빛은 환한데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 울려 퍼지누나.~~44)

집행을 마지막까지 잘 하면 진급을 시켜주겠다던 원세개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 버리며 사형대가 있는 운동장으로 걸어갔다. 부귀와 명예의 달콤한 속삭임도 더 이

43) 莫言 《檀香刑》: 「第一棍打倒了太行山~~~填平了膠州灣~~~第二棍蕩平了萊州府~~~嚇死了白額虎——第三棍打倒了擎天柱——顛倒了太上老君的八卦爐~~~咪鳴~~~咪鳴~~~」(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62쪽.

44) 莫言 《檀香刑》: 「余轉身向通德校場走去, 再也沒有回頭. 月光照耀着余的眼睛, ...就是一句能够翻花起浪的猫腔. 猫腔的雖然悠長但是節奏分明的旋律在余的心中回響, 使余的一舉一動都踩在了板眼上. 高密縣出衙來悲情萬丈——咪鳴咪鳴——秋風涼月光光更敲嚮亮~~~」(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71쪽.

상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을 채운 건 猫唱으로 그 소리는 통치자의 절대 명령을 거역하게 하는 용기를 주었으니 그는 孫眉娘에게 배운 猫唱을 노래하며 형장으로 향했던 것이다.

소설 속에서 박달나무를 「박달나무는 보통 여덟 자 높이로 우뚝 솟아 있어 나무들 가운데 대장부요, 숲속의 영웅이다. 모두들 박달나무 잎을 가볍게 문지르면 아름다운 여인의 곡조가 울려 나오고 봉황의 노래, 제비언어, 종달새 울음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모두들 박달나무 사내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용모와 자태를 가지고 있으며 차와 과일을 던지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전한다고 했다. 모두들 박달나무 판자의 맑은 소리는 새롭고 신성하다고 했고,……박달나무로 만든 마차는 가장 화려하다고 했다.」<sup>45)</sup>라고 묘사한 것처럼 박달나무는 기품 있고 자애로운 기질을 상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도 우아한 중국 문화를 비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나무가 형벌의 잔혹한 도구가 되었으니 현령은 「누군들 박달나무 썰기가 사람을 찌르는 것을 보았으랴. 이것은 왕조의 마지막 부도덕 행위」<sup>46)</sup>라며 한탄한다. 사실 이러한 덕형이 부족한 형벌은 문화체계와 권력체계의 전면적인 붕괴를 암시하고 있다.<sup>47)</sup>

처형장에는 孫丙을 위해 노래를 부르다 무참하게 살해당한 백성들의 시체가 가득했고 부엌에선 袁世凱와 독일 총독을 위한 반찬 볶는 소리가 왈자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孫丙의 죽여 달라는 절규를 들은 현령은 孫丙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고 자신의 연인인 眉娘은 시아버지인 망나니 趙甲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孫丙의 입에서 피가 용솨음쳤고 그 피와 동시에 나온 것은 한마디 짧은 노래였다.

극은……끝났다……<sup>48)</sup>

45) 莫言《檀香刑》:「亭亭玉立十八丈, 樹中丈夫林中雄. 都說那檀口輕啓美人曲, 鳳歌燕語啼嬌鶯. 都說那檀郎親切美姿容, 拋果盈車傳美名. 都說是檀板清越換新聲……都說時檀車煌煌戎馬行…」(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44쪽.

46) 莫言《檀香刑》:「誰見過檀木橛子把人釘, 王朝末日缺德刑。」(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152쪽.

47) 陳天竺〈聲音唱出的民間狂歡〉:《社科縱橫》2006년 제21권 1기, 103쪽.

48) 莫言《檀香刑》:「戲……演完了!……」(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4), 375쪽.

그렇다. ‘형벌극’ ‘檀香刑’도, 지방극 ‘檀香刑’도 끝이 났다. 孫丙의 삶도 끝났고, 망나니 趙甲의 삶도 끝이 났다. 독일군의 계획도 현령의 진급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권력과 민간의 대립도 끝이 났고, 억압과 지배의 권력의 독주도 자유와 해방을 향한 마을사람들의 합주도 끝이 났다. 이제 高密縣도, 北京의 淸 왕조도 또 다른 역사 속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다.

孫丙의 마지막 노래로 막을 내린 ‘檀香刑’에는 여러 중층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淸 왕조는 ‘檀香刑’ 형벌을 받고 천천히 죽어가는 孫丙과도 같았다. 孫丙이 ‘檀香刑’을 받는 고통의 상황과 왕조 말기에 통치자들이 무력해진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몸부림치는 과정은 교묘히 일치된다. 고통 속에 죄인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은 서서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봉건왕조의 몰락 과정인 것이다. ‘檀香刑’은 바로 꺼져가는 권력의 絶唱이었고 서서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淸 왕조와 봉건 문화의 처절한 絶唱이기도 했다.<sup>49)</sup>

‘檀香刑’은 孫丙의 猫唱 인생의 絶唱이었다. 猫唱과 함께 살다가 猫唱과 함께 죽어가는 한 생명의 절창이었고<sup>50)</sup> 권력의 억압 속에서 무대 뒤로 사라지는 한 지방 극단의 통한의 絶唱이기도 했다.

또한 ‘檀香刑’은 자유와 정의를 향한 열정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 민간의 강한 생명력에 대한 예찬이기도 했으며 권력의 잔혹함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보게 하는 메시지가기도 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정신이 아직 존재하며, 권력에 반항하는 반항 정신과 자각적인 의식을 가진 민중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sup>51)</sup> 민간의 강한 생명력이 권력과 통치자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유를 향한 민간의 열정이 억압과 지배를 물리칠 수 있다는, 지방의 주변문화가 중심문화를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高密縣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민간문화 猫唱으로 권력에 대항하고, 열강에 맞서 싸웠던 것이다.

민간의 소리가 결국 권력의 소리를 압도하고 말았으니 ‘檀香刑’ 희곡이 끝난 뒤에도 내내 귓가를 맴돈 것은 자유를 향한 민간의 함성과 애잔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猫唱의 선율이었다.

49) 王寶鵬 〈人性黑洞與歷史隱喻〉; 《名作欣賞》 2004년 제3기, 51쪽.

50) 韓琛 〈歷史的挽歌與生命的絶唱〉; 《小說評論》 2002년 제1기, 62쪽.

51) 徐祺琪 〈看與被看的差異〉; 《河池學院學報》 2006년 제26권 4기, 87쪽.

## V. 결론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檀香刑》에는 ‘刑罰劇’에서 울려 나오는 서늘하고 섬뜩한 권력의 소리와 애잔하고 처연하지만 강한 힘이 느껴지는 민간의 猫唱 소리가 전 소설 속을 맴돌면서 귀를 자극했고, 그 소리는 권력과 민간, 억압과 자유, 인성과 괴와 인성찬미 등의 이원 대립적인 메시지를 암시하면서 희곡무대 속으로 이끌었다.

너무도 생생하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잔인한 형벌장면은 막강한 통치 권력의 힘을 입증하고, 사악한 감상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 잔인한 희곡으로 연출되고 그 희곡 장면마다 죄인과 망나니에 의해 만들어진 소리는 엄청난 권력의 힘을 반증하면서 섬뜩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刑罰劇’에서 울려 퍼지는 권력의 소리는 중국 전체정치의 비극과 이러한 상황아래 왜곡되고 파멸되는 인성 비극을 드러내고 있다.

‘刑罰劇’에서 조성된 섬뜩한 소리와는 달리 고밀현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지방극 猫唱(고양이 노래)의 소리도 울려 퍼지고 있다. 高密縣 사람들이 등장할 때면 猫唱(고양이 노래)을 섞어 가며 기쁨·한·아픔·분노 등을 쏟아내고 있으니 소설 곳곳에는 민간의 숨결이 생동적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아울러 독특한 지방문화의 색채를 지니고 있는 猫唱의 소리는 소설에 음악미를 더해주고 인물성격, 이야기 전개 등 소설의 여러 요소들과 역동적으로 결합되면서 원시적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민간의 정서를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다.

망나니 조갑의 등장과 독일군의 진입으로 高密縣 무대에서는 권력과 민간에 의해 ‘檀香刑’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하지만 내용은 서로 다른 두 희곡이 연출되었다. 마지막엔 소설 속 주인공들이 모두 같은 무대에 오르게 되니 고밀현은 권력과 민간이 대립하고 자유와 억압이 대치하는 역사적 장소가 되었다. 결국 자유와 정의를 향한 민간의 猫唱 소리가, 강한 생명력을 여실히 보여준 민간의 猫唱 소리가 권력의 소리를 압도한 가운데 ‘檀香刑’ 희곡은 막을 내렸다.

《檀香刑》에서의 ‘地方劇’과 ‘刑罰劇’이라는 이중적 장치는 작가가 자신의 고향 山東 高密縣의 아름답고 신비한 猫唱이라는 민간문화를 더욱 부각시키고, 근대화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린 高密縣의 변화와 그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민간문화로 대항하는 강한 생명력을 부각시키며 또 이러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민간문화가 점점 사라지는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莫言《檀香刑》北京，當代世界出版社，2004
- 楊揚編《莫言研究資料》天津，天津人民出版社，2005
- 魏建，賈振勇《齊魯文化與山東新文學》湖南，湖南教育出版社，1995
- 季桂起〈論莫言‘檀香刑’的文化內涵〉；《齊魯學刊》2004年 1期
- 喬明濤〈莫言創作的狂歡情結與民間品性〉；《寧波職業技術學院學報》2007年 11卷 4期
- 鳳卓〈‘民間’與‘廟堂’的審美象徵〉；《巢湖學院學報》2009年 11卷 5期
- 呂周聚〈人性惡的象徵符號〉；《海南師範學院學報》2005年 3期
- 劉雲艷〈民間小戲裏的大狂歡〉；《長江師範學院學報》2008年 24卷 1期
- 蘇忠釗〈論莫言小說‘檀香刑’中的生命意識〉；《哈爾濱學院學報》2007年 28卷 1期
- 徐祺琪〈‘看’與‘被看’的差異〉；《河池學院學報》2006年 26卷 4期
- 王寔鵬〈人性黑洞與歷史隱喻〉；《名作欣賞》2004年 3期
- 陳天竺〈聲音唱出的民間狂歡〉；《社科縱橫》2006年，21卷 1期
- 黃世權〈多元文化互滲時期的寫作策略〉；《理論與創作》2005年 4期
- 韓琛〈歷史的挽歌與生命的絕唱〉；《小說評論》2002年 1期
- 티모시브룩 외, 박소현 역 《능지처참》 서울, 너머북스, 2010

### 【中文提要】

《檀香刑》使用喜劇化的敘事手法和民間說唱藝術描寫了兩個不同空間的文化氣氛，一個是政治空間北京的黑暗的刑罰文化，另一個是作家的家鄉山東高密縣的獨特而神秘的地方文化。因此讀起來好像在看舞臺上的兩出戲曲。特別是小說字裏行間嚮起的聲音造成了不同的氛圍。

本文探討了作家通過北京的‘刑罰劇’和‘高密縣的地方劇’的雙重裝置體現了甚麼。探究‘刑罰劇’和‘地方劇’中嚮起的聲音在小說中怎樣體現，并探討了這種聲音

在小說中起到了什麼作用。

首先，通過對殘忍的刑罰場面的既生動又細密的描寫，證明了統治者莫大的權力。爲了滿足邪惡的鑑賞趣味，刻畫成殘忍的戲曲場面。戲曲場面中嚮起的權力的聲音體現了中國專制政治的悲劇，也體現了在這種情況下被扭曲和毀滅的人性的悲劇。

第二，‘刑罰劇’中除了令人顫栗的聲音，還嚮起高密縣地方劇中神秘而動人的貓唱。高密縣百姓上場的時候用貓唱說出了各自的喜悅，恨，憤怒，悲哀，因此小說字裏行間充滿濃厚的民間氣息。

‘刑罰劇’和‘地方劇’的雙重裝置是爲了烘托山東高密縣的貓唱民間文化，爲了烘托在變化和危機中用自己的民間文化對抗着的民間的生命力，還爲了表示對獨特而神秘的民間文化日漸式微的憂慮。

### 【主題語】

‘刑罰劇’，‘地方劇’‘貓唱’，‘檀香刑’，權力，民間

투고일: 2011. 4. 17 / 심사일: 2011. 4. 25~5. 6 / 게재확정일: 2011. 5. 13